

사전과 통사론

—동사 빠지다의 사전적 기술을 위하여(I)—

홍재성
(불어불문학과 부교수)

1. 머리말

이 글은, 사전편찬과 통사론 연구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점을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배경을 갖고 쓰여진 것이다. 그 관계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한 마디로 상호교류와 보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정보의 부정확성, 빈약성, 그 표시에 있어 일관성, 체계성의 부재 등 기간 언어사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휘부 중심의 통사론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 한편 통사론 연구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구성된 언어사전이 담고 있는 정보를 주요한 언어자료로 활용할 때 좀 더 적합하게 언어현실을 표상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수립을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의 실체적인 근거를 예시하기 위하여, 동사어휘 항목구성의 한 국면을 다루어 보려는 것이다. 그것은 동사어휘분석이 언어사전 편찬이나 어휘부 중심의 언어학 연구에서 모두 두드러지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의 축도를 보여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한국어 동사 빠지다의 용법을, 먼다를 다룬 홍재성 1992b에서 채택한 모형에 따라 기술해 보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이론적·실제적 문제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 글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어 사전편찬을 염두에 둔 실질적인 작업의 작은 한 토막을 이루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작업은,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공시적 언어사전으로서의 한국어 사전 편찬자료를, 단기적으로는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사전 편찬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동사어휘의 체계적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대 한국어의 핵심적인—실제적으로는, 편의상, 우리가 능동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동사어휘를 총체적으로 목록화하여 가능한 한 통사적 속성에 입각하여 분류·유형화하고, 또 한편으로 개별 동사 하나하나에 대하여 그 가능한 용법을 총망라하여 분석·구별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것은 전통적인 사전에서 동사항목을 구성하는 작업과 그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다만, 현 단계에서, 우리는 한정된 한 용법에 대응되는 의미

* 이 글은 1989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자유공모과제) 지원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해석을 정의의 형식으로 기술하는 작업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다음 단계의 과제로 미루어 둔다. 우리는, 우리가 시도하는 어휘기술이 해당 어휘의 여러 의미acception를 더욱 적절하고 근거있게 구별하여 표상하는 정의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이고 선행적인 성격의 작업을 이를 것이라 판단한다.

이와 같은 어휘분석을 위해 우리가 수용하는 기본적인 언어학 이론과 방법론은 M. Gross의 어휘·문법 *lexique-grammaire*인데, 비교적 전통적인 형식의 사전편찬을 실제적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 I. Mel'čuk의 의미·텍스트 대응이론 *théorie du sens-texte*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입장을 택하고자 한다.

홍재성 1992b에서는 먹다 동사의 가능한 용법을 다음의 네 가지 큰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다.

—일반 자유구문

—기능동사구문

—관용구문

—보조동사구문

우리는 이러한 모형을 빠지다 동사의 경우에 적용하여 그 다양한 용법을 주로 통사론 중심의 언어학적 논의에 따라 체계화해 보고자 한다.

빠지다도 먹다에 못지 않게 그 쓰임새가 복잡해서, 문제의 여러 국면에 대한 비교적 긴 검토가 필요하므로, 우리는 논의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발표할 것이다. 그 전반에 해당하는 이 글에서는 빠지다의 가능한 사용을 정리한 전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후에, 일반 자유구문의 용법을 세분화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분석에 논의를 국한하려고 한다. 별도의 글로 준비하고 있는 후반부에서는 빠지다의 다른 범주의 용법을 다루는데, 빠지다의 기능동사 용법을 분석하는 데 중심이 놓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빠지다의 어휘기술이 기능동사 연구에 흥미있고도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집중적인 거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글이 이와 같이 두 부분으로 완결될 것이므로, 여기서 주로 살펴볼 일반 자유구문 이외의 용법을 예시하는 자료는 조금 간략하게 제시 할 것이다. 특히 관용구문 부분은 그 통사적인 기술을 위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까닭에 잠정적이고 개략적인 정리 결과만 소개해 두고자 한다.

2. 빠지다 구문의 기술

2. 1. 일반 자유동사구문

빠지다 I.

가. 빠지다₁ : N₀ N₁-(에 + 로) 빠지다

- (1) 철수와 그의 동료들은 경찰에 딜려 구덩이-(에+로) 빠졌다.
- (2)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뼈스가 강물-(속+E)-으로 빠졌다.
- (3) 배가 전복되어 실험도구들이 저수지-(바닥+E)-(에+으로) 빠졌다.
- (4) 기영이는 흙탕물이 잔뜩 고여 있는 (데+곳)-(에+으로) 빠졌다.
- (5) ㄱ. 철수는 (몸이+E) 흙탕물에 (무릎+허리)-까지 빠졌다.
ㄴ. 영주는 뱀이 그만 흙탕물에 빠지고 말았다.

나. 빠지다₂ : N₀ N₁-(에+게+에) 빠지다

- (6) 철수는 요즈음 영희에게 (푹+E) 빠져서 제 정신이 아니다.
- (7) 영시는 (역사책+전자음악+고호+노름+'빠지다'+'역다'+...)에 빠져서 학교공부는 나몰라라 한다.
- (8) 정환이는 한 동안 (노름하는+나비를 잡으러 다니는) 데에 빠져서 보이는 것이 없었다.
- (9) 윤환이는 신앙에 빠져서 한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 생활을 했었다.
- (10) 기영이는 혁명-(의+에 대한) 환상에 빠져 일찍부터 지하운동에 가담했다.

빠지다 II.

가. 빠지다₃ : N₀ V-러 N₁-Loc 빠지다

- (11) 기영이는 영주를 만나려 회의장에서 (뒤+뒷문)-으로 빠져서 급히 택시를 잡아탔다.
- (12) 영주가 탄 차는 기영이를 태우려 옆길로 빠졌다.
- (13) 윤환이는 대열에서 슬그머니 빠져서 그늘로 가 앉았다.
- (14) 그들은 재빨리 (셋길+옆문)-으로 빠졌다.

나. 빠지다₄ : N₀ N₁-Loc 빠지다

- (15) 빨마탁에 박힌 (가시+사금파리)-가 아무리해도 안 빠지네.
- (16) ㄱ. 이것은 모두 철수 머리에서 빠진 머리칼일거야.
ㄴ. 이 나사도 그 기계에서 빠진 거야.
ㄷ. 아니, 나사못이 어디로 빠져 버렸지 ?
- (17) ㄱ. 정환이는 머리가 많이 빠졌네.
ㄴ. 정환이-(의+E) 머리도 별 써 많이 빠졌구나 !
- (18) 윤환이는 기영이에게 얼어 맞아 (*잇몸에서+E) 이가 두 개나 빠졌어.

다. 빠지다₅ : N₀ (N₁+P 데)-에 빠지다

- (19) 나는 오늘 (학교+강의+그 모임+...)-에는 빠지겠어.
- (20) ㄱ. 나는 술 마시러 가는 데에는 빠졌다.
ㄴ. 나는 이번에 정환이네 집에서 모이는 데에는 빠지겠어.
- (21) ㄱ. 그는 여러 날 (학교+강의+회의)-를 빠졌다.
ㄴ. 철수가 술 마시러 가는 데를 빠질 리가 있나 ?
- (22) ㄱ. 오늘은 (철수+두 사람)-이 빠졌구나 !
ㄴ. 나는 오늘은 빠질게.

라. 빠지다₆ : N₀ N₁-에서 빠지다

(23) 철수는 그 (모임+동아리+비밀 결사+...)에서 겨우 빠졌다.

따. 빠지다₇ : N₀ N₁-에서 빠지다 — N₀ N₁-에 빠지다

(24) 이 (책+논문)-은 참고문현 목록에서 빠졌다.

(25) 윤환이-(의 이름+E)-은 숙정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

(26) 그의 (글+논의)-에서는 이 점이 빠졌어.

(27) 이 책-(에+E)-는 19쪽이 빠졌는데.

(28) (이 줄에+여기) 글자가 하나 빠졌다.

(29) 이 명단에는 (윤환이-(의+E) 이름+윤환이)-가 (빠졌네+;) 쪽 있네).

(30) 그 서류가 빠졌는데.

—. 빠진 글자를 잘 적어 넣게.

따. 빠지다₈ : N₁-의 N₀ 빠지다 — N₁에 N₀ 빠지다

1. N₀=냄새, 바람, 공기, 물

(31) 향-(의+에+에서+이) 냄새가 아직 다 안 빠졌잖아?

(32) (공+바퀴)-(의+에+?에서+이) 마람이 빠졌다 봐.

(33) (져수지+논+욕조)-(의+에+?에서+이) 물이 이제 다 빠졌네.

2. N₀=기운, 힘, 액

(34) 그 말을 들으니, 나는 온 몸-(의+에+?에서+이) (기운+힘+액)-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

3. N₀=살

(35) 운동을 열심히 하니 (몸-(의+에+?에서+이))+E)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

(36) 그. 너 며칠 고생 하더니 (얼굴+양-(쪽E)-불)-이 (쪽+E) 빠졌구나!

—. 너 그 사이-(에+E) 좀 빠진 것 같다.

4. N₀=물, 때, 얼룩

(37) 그. 이 웃은 물이 잘 빠지는 것이 큰 흠이야.

—. 이 천은 때가 잘 안 빠져

(38) (얼룩이+커피를 떨어뜨린 것이+과일 물 듣 게) 영 안 빠지네.

(39) 이 비누-(로+E)-는 때가 잘 안 빠져.

5. N₀=부기, 고름

(40) 이제야 얼굴에 부기가 다 빠졌군.

(41) 상처에 고름이 아직 다 안 빠졌다 봐.

6. N₀=밀, 무릎

(42) (항아리+통이+가마+구두+상자+...)-가 밀이 빠졌다.

(43) 이 바지는 하도 오래 입어서 무릎이 빠졌어.

2. 2. 기능동사 구문

빠지다 III.

가. 1.

(44) 철수는 영희와 (서로+E) 사랑에 빠졌다.

(45) 은환이는 절망에 빠졌다.

가. 2.

(46) 연주는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

(47) 순희는 (깊은 잠에+잠에 깊이) 빠졌다.

(48) 기연이는 (공포+역정+곤경+궁지+...)에 빠졌다.

(49) 벽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나. 1.

(50) 유고슬라비아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51) 기연이는 위협에 빠져 있다.

나. 2.

(52) 한국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

(53) 공산당 몰락 직후 그 나라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다.

(54) 순희는 윤환이의 뼈에 빠져서 밖으로만 나온다.

(55) 순희는 윤환이의 유혹에 빠져서 몸을 버렸다.

2. 3. 보조동사/보조 형용사 구문

빠지다 IV.

(56) 윤환이는 (썩어+닳아+...) 빠졌다.

(57) 그 너석은 몸이 비쩍 말라 빠졌다.

(58) 이 식어 빠진 죽을 누가 먹겠니 ?

빠지다 V.

(59) 그 친구는 (게을리+너무 착해) 빠져서 일을 맡길 수가 없어.

(60) 윤환이는 너무 약아 빠졌어.

2. 4. 관용구문

2. 4. 1. 속어동사구문

가. N₀ Adv 빠지다

- (61) 종인이는 (인물+키+몸+…)-이 쭉 빠진게 마음에 드는데.
 (62) 이번 제품은 아주 잘 빠졌어.

나. N₀ X 빠지지 않다

- (63) 그. 기영이는 (누구에게도+남보다) 빠지지 않았다.
 ↗. (그의 실력+이 제품)-은 어디에 내 놓아도 빠지지 않을거야.
 (64) 그 친구들중에서는 영서가 아무래도 좀 빠지는데.

다. N₀ C₁-이 빠지다

- C₁=길, (얼+넋), 정신, (쓸개+별), 뿐, 혼쭐, 머리, 빼꼽, 이…
 (65) 야, 이제 김-(이+E) 다 빠졌어.
 (66) 그 녀석 별이 빠졌지, 어찌자고 그런 말을 해.
 (67) 그 녀석은 어찌나 혼쭐이 빠졌는지 맨발로 출행탕을 놓았다.
 (68) 이 문제에만 매달리다가는 머리-(가+E) 빠지겠다.
 (69) 야, 그만 웃겨라. 배꼽-(이+E) 빠지겠다.

라. 기타유형

- (70)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붓침+보통이) 내-(놓으라+라) 한다.
 (71) 물에 빠지면 주머니부터 (풀 쳐지다+뜨겠다).

2. 4. 2. 속어형용사 구문

가. N₀ C₁-같다

- (72) 철수는 꼭 물에 빠진 생쥐 같다.

2. 4. 3. -이 다 구문 : N₀ C₁-이다

- (73) (그것+그 녀석 도와 주는 것)-은 밑 빠진 (항아리+독+동이+가마)-에 물 (길 어+E) 붓기 다.

2. 4. 4. 합성표현

가. 합성부사

가. 1. (한 N-도) 빠짐없이

- (74) 내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라.
 (75) 그의 말은 한 마디도 빠짐없이 적어 둬.
 (76) 기영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모임에 나왔다.

가. 2. 쭉 빠지게

- (77) 윤환이는 새 양복을 (쭉+*E) 빠지게 차려 입고 나타났다.

가. 3. (C-이] + C-) 빠지게

C=눈, 뼈, 똥줄, 뽕, 맥…

- (78) 우리는 기영이를 (눈-이+눈-) 빠지게 기다렸다.
- (79) 그들은 (뼈-가+뼈-) 빠지게 (일만 했다+고생했다).
- (80) 그 뼈는 똥줄이 빠지게 혼을 내야 돼.
- (81) 나는 뽕빠지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부어도 소용이 없었다.
- (82) 맥빠지게 굴지 마라.

나. 합성동사 : 빠져-V

V=나오다, 나가다, 들다, 들어가다…

- (83) 공연에 실망해서 관객들이 대부분 중간에 극장에서 빠져나갔다.
- (84) 나도 모르게 그의 대사에 빠져들어갔다.

다. 기타유형

- (85) (사돈+외사촌)-이 물에 빠졌다, (실없이+E) 웃기는 왜 웃어 ?
- (86) 밀 빠진 동이에 물이 괴거든 깊으라고 하려느냐,

3. 일반 자유구문의 빠지다

빠지다의 일반 자유구문은 동사 빠지다가 논리의미상 술어 *prédicat*의 성격을 갖고 구성되는 단문유형의 총체를 말한다. 그것은 술어가 사랑이나 유혹 등과 같이, 동사가 아닌 평사어회법주로 실현되면서 이루어지는 단문에서 동사위치에 선택되는 기능동사 *verbe support¹⁾* 빠지다의 구문과 구별된다. 또 그것은 빠지다의 보조동사/보조형용사 구문과도 구분된다. 그것은 또한 한 부위 이상의 통사위치에서 다양한 정도의 고정성 *figement*을 보이고 의미해석이 일반적으로 합성적 *compositionnel*이 아닌 단문유형인 빠지다의 속어구문과도 대립을 이룬다. 빠지다는 또 여러 유형의 합성표현(합성동사나 합성부사등)을 구성하기도 한다. 우리는 빠지다의 사용을 앞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체계화하여 보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일반 자유구문을 한정하고, 그것을 세분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일반 자유구문 빠지다는, 통사적 속성을 논거로 극단적인 동형어 분할을 시도한다면, 적어도 여덟 개의 빠지다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전통적인 사전에서의 처리를 고려하여 편의상 빠지다 I과 빠지다 II의 중간법주로 묶어서 배열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어느 정도 절충적이고 또한 임시방편적인 선택이며 따라서 논의의 여지가 많다. 그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열린 문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이 절에서는 빠지다의 동형어

1) 이 글에서 활용하는 기능동사 개념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어 자료를 근거로 비교적 종합적인 논의를 전개한 홍재성 1993을 참조할 것.

분할을 지지하는 논의에 더 비중을 두고, 빠지다의 구별할 수 있는 가능한 용법 하나하나를 살펴본다.

3. 1. 빠지다 I.

3. 1. 1. 빠지다₁

빠지다₁은 N₀(-에/-로) 연쇄를 유일한 보어로 선택하는 자동사로 특징지어 진다. 빠지다₁이 실현되는 단문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87) N₀ N₁-Loc 빠지다
(Loc=-에, -로)

이러한 빠지다₁은, 보어가, 주어가 지칭하는 대상의 공간적 이동(하강의 이동)의 종점 point final으로 해석되는 점에서, 다음의 뛰어내리다와 같은 이동동사 verbe de mouvement (이하 V_{mt}로 약칭 함)²⁾와 공통점을 갖는다.

(88) 철수는 꽤 깊은 구덩이 바닥-(에+으로) 그냥 뛰어내렸다.

N₁-(에+로) 연쇄는 N₁ 위치에 구덩이, 구멍, 저수지 같은 장소명사, 여기/거기/저기 등 장소대명사 이외에 N-(속+바닥+아래+…)의 복합적 공간표현, 그리고 관계절+장소의 형식명사 데/곳의 결합등 특징적인 장소 명사구가 분포되고, N₁이 의문사 어디에 대응하는 점에서 전형적인 장소보어의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빠지다₁은 뛰어내리다와 동일한 부류에 속할 수 없다. 뛰어내리다는 무엇보다도 -려 연결어미문을 보어로 용인하는 통사적 속성에 의해 특징지울 수 있다.³⁾ 이에 대하여, 위의 (1)-(5)의 빠지다는, (1)/(4)에서와 같이 인물명사 주어의 분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려 연결어미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89) 철수는 천단을 쪽으려 구덩이 밑으로 (뛰어내렸다+*빠졌다).

이러한 관찰에 의거하면, 빠지다₁은 또 다른 유사한 의미의 동사 뛰어들다와도 대조를 이루면서, 가라앉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미끄러지다, 자빠지다, 얻어지다, 고꾸라지다 등 등 비능동적 non-actif (또는 무의지적) 이동을 나타내는 운동동사로⁴⁾ 특징지어 질 것이다.

2) 우리의 논고에서 거론되는 V_{mt}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기술은 Hong 1985 및 홍재성 1987을 참조 할 것.

3) 우리는 가다, 오다, 뛰어내리다 또는 빠지다, 등을 포함하는 V_{mt} 구문에 배타적으로 분포되는 -려 연결어미문에 보문의 지위를 부여하는 분석을택한다. 이러한 분석을 정당화하는 논거들은 주 2)에서 언급한 문헌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4) 운동동사는 대상의 공간상 이동의 다양한 양상을 표현하는 여러 유형의 동사들을 잡정적으로 총칭한다.

(90) 철수는 급한 김에 몸을 숨기려 응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빠졌다).

(91) 영호는 범인을 잡으려 (기차에서+밑으로) (뛰어내렸다+*떨어졌다).

빠지다₁을 여타의 빠지다와 구별하여 한정하는 입장에서, 특히 의미상 관련이 깊은 V_{m!}와 대조될 수 있는 점을 중심으로, 또 다른 어휘·통사적 속성을 몇 가지 더 지적해 본다.

(가) -려 보문에 의해 특징지을 수 있는 V_{m!}는 주어위치에 인물명사(동물명사 포함)와 사물명사의 하위부류인 교통기관 명사만을 허용한다. 그러나 빠지다₁의 주어위치에는 인물명사 이외에 교통기관 명사를 포함한 개방적인 목록의 구체·사물명사의 분포가 가능하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V_{m!}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빠지다₁에 대해서는 인물주어가 유표적 non-marqué인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물주어가 -려/-려고 연결어미문과 양립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⁵⁾ 일부러, 의도적으로와 같은 부사의 사용을 거부하면서 비능동적 해석을 받기 때문이다.

(92) ㄱ 철수는 일부러 친물 속-(에+으로) 뛰어들었다.

ㄴ. “철수는 일부러 흙탕물 구덩이-(에+로) 빠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능동적 인물주어의 분포는, 복합명사구 N-의 N₀ (N은 인물명사, N₀는 를, 발 등 신체부위명사)을 그 출처로 설정할 때, 사물주어의 분포에 통합되고 그 유표성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 유형의 문장은 재구조화 restructuration⁶⁾ 및 적정명사 nom approprié 구 삭제⁷⁾를 내포하는 다음과 같은 가정의 과정에 의해 유도할 수 있다.

(93) ㄱ. [철수의 몸]-이 구덩이에 빠졌다.

ㄴ. [철수]-는 [몸]-이 구덩이에 빠졌다. [재구조화]

ㄷ [철수]-는 φ 구덩이에 빠졌다. [적정명사구 삭제]

이러한 가정을 한다면, (1), (4) 및 (93)ㄷ.의 인물주어는 일종의 환유 métonymie적 해석을 받아서 비능동적 의미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5) ㄱ.-ㄴ.

빠지다₁과 같이 운동동사로 기술되면서 -려보문을 용인하지 않는 또 하나의 다른 부류의 동사들은 걸다, 뛰다, 기다 등과 같이 이동의 양상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동사들은 종점의 보어 N₁-에 역시 거부한다.

i) 그들은 영주를 만나려 (*뛰었다+뛰어갔다).

ii) 영주는 서울역쪽-(*에+으로) 걸었다.

5) 빠지다₁을 비롯하여 떨어지다, 가라앉다 등의 동사들은 -려고 연결어미문과의 결합도 불가능하다. 이 점은 이들 동사의 주어가 갖는 비능동적 의미특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관찰이 될 것이다.

iii) ㄱ 철수는 반지를 찾으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빠졌다).

ㄴ. 해녀들은 전복을 따려고 좀 더 깊이 (잠수했다+*가라앉았다).

6)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Guillet et Leclère 1981 및 박만규 1993를 볼 것.

7) 적정명사구 삭제는 Z. Harris의 변형문법 태두리에서 고안된 개념이다. 자세한 점은 Harris 1965 및 Zribi-Hertz 1978을 볼 것.

이 보여주는 빠지다의 이중주격 구문은 빠지다₁과 별도의 구문으로 분리되지 않고, (1)-(4)와 동일한 용법으로 통합·기술될 수 있는 것이다. 단, (5) ㄴ.에서는 발이 적정명사의 성격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할 것이다.⁸⁾

(나) V_{mt} 구문에서는 종점보어의 표지 -에는 규칙적으로 생략이 가능하고, 또한 강조의 양태조사 -를의 부착이 가능하다.

(94) ㄱ. 너도 그날 수락산 갔었지 ?

ㄴ. 칠수는 지난 주말에 처음으로 수락산-(에+E)-을 갔었다.

이러한 속성은 의미상 이동의 부정을 내포하는 빠지다₅ 구문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21) ㄱ.-ㄴ. 참조]. 그러나 빠지다₁은 다음에서 보듯이 V_{mt}와 그 형태가 다르다.

(95) ㄱ. *칠수도 (그+E) 구덩이 빠졌었지 ?

ㄴ. *기영이도 (그+E) 웅덩이를 빠졌었대.

ㄷ. ??영주는 발이 그만 흙탕물에 빠지고 말았어.

(다) 빠지다₁은 N₁-에 보어를 취하므로 빠지다₂ 및 빠지다₅의 빠지다와 형식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듯하나, 두 경우 N₁의 분포적 성격이 판이 할 뿐더러, 빠지다₁ 구문에서는 -에/-로의 변이가 가능하기도 하다. 더욱 중요한 점은, 빠지다₁ 구문만이, 사역동사로 분석될 수 있는 빠뜨리다 구문과 규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96) ㄱ. 경찰은 철수와 그의 동료들을 밀어 구덩이-(에+로) 빠뜨렸다.

ㄴ. 영주는 반지를 수채구멍-(에+으로) 빠뜨렸다.

(라) 빠지다₁ 구문을 특징짓기 위해 검토할 점들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할 문제점은 N₁에 뒤따르는 조사 -에/-로의 변이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Hong 1985에서 V_{mt} 구문을 분석할 때 N₁-에/N₁-로 두 연쇄를 의미해석이나 통사행태가 상이한 별개유형의 장소보어로 구별하였다. 우리의 분석은 N-에 연쇄를 종점의 보어로 N-로 연쇄와 구별하고, N-로는 다시 방향direction의 보어와 경로passage의 보어로 구분하는 것이었다.⁹⁾ 이 글에서 빠지다₁ 구문을 한정하기 위해서는 편의상 현상을 -에/-로의 교체 가능성으로 기술하였는데, 사실은 V_{mt} 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연쇄가 격조사의 자유변이를 보이는 동일한 성격의 보어는 아닐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두 연쇄를 동일한 성격의 종점의 보어로 분석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논거가 될 수 있을 두 가지 관찰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¹⁰⁾

8) (5) ㄱ. 에서 (허리+무릎)-까지 연쇄의 통사적 지위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연쇄는 다음 예문에서 관찰되는 N-까지와 동일한 성격을 갖지 않나 추정되기도 한다.

iv) ㄱ. 영주는 그 책을 벌써 200쪽까지 읽었다.

ㄴ. 그 전물은 9종까지 불에 탔다.

9) 자세한 논의는 Hong 1985 및 홍재성 1987, pp. 28-31을 볼 것.

10) 우리가 설정하는 장소보어 체계에 따르면 빠지다₁의 N₁-에 연쇄는 종점의 보어, N₁-로 연쇄는 방향의 보어로 기술될 것이다.

(ㄱ) 빠지다₁ 구문에서 N₁의 명사분포 등 맥락에 따라서는 -에/-로의 교체가 자유롭지 못하다. 예컨대 (5) ㄱ.-ㄴ.에서 N₁뒤의 에를 -로로 바꾸면 비문이 결과되거나 그 용인 가능성은 아주 낮아질 것이다.

(5) ㄱ' *철수는 (몸이+E) 흙탕물로 (무릎+허리+…)-까지 빠졌다

ㄴ'. *영주는 빨이 그만 흙탕물로 빠지고 말았다.

(ㄴ) 빠지다₁ 구문에는 -어 있다의 적용이 가능한데, 이때 N₁-로는 불가능하고 N₁-에만 허용된다. 두 연쇄의 실현에 따른 용인 가능성의 차이는 명백하다.

(97) ㄱ. 철수는 구덩이-(에+*로) 빠져 있었다.

ㄴ. 빼스가 강물 속-(에+*으로) 빠져 있었다.

ㄷ. 철수는 몸이 허리까지 수렁-(에+*으로) 빠져 있었다.

이상과 같이 빠지다₁의 용법은 비교적 큰 어려움없이 한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1. 2. 빠지다₂

빠지다₂는 다음 유형의 단문에 실현되는 자동사로 한정된다.

(98) N₀ N₁-(에게+에) 빠지다

이 빠지다 역시 그 의미는 앞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항술어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공간적 이동이 아닌, 상태의 변화—주어가 지칭하는 인물이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열중·몰입하는 과정의 처음 국면—를 나타내는 점에서 앞의 빠지다와 우선 다르다. 이러한 직관적인 의미해석에 대응되는 몇 가지 주요한 어휘·통사적 속성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빠지다₂는 이항술어로 특징지을 수 있겠으나, 두 논항의 영역은 앞의 빠지다의 경우와 상이하다. 우선 주어로 실현되는 제 1 논항은 사람에 국한된다. 주어의 위치에는 인물 명사만 가능한 것이다.

(나) 제 2 논항의 통사적 실현인 보어의 위치에는 인물명사, 사물명사, 특히 데 보문의 분포가 가능하다. 보어의 표지는 -에게/-에이므로 빠지다₂ 역시 자동사로 분석된다. -로의 사용은 사물명사보어에 대해서도 불가능하고, 보어위치에는 장소명사가 아닌 구체명사, 또는 여러 유형의 활동등 열중하거나 몰입을 할 대상을 나타내는 추상명사가 나타난다. 한마디로 빠지다₂의 N₁-(에게+에) 연쇄는 장소보어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또 예문 (7)에서 볼 수 있듯이, ‘빠지다’나 ‘먹다’와 같이 자시어 autonyme의 지위를 갖고 사용된 언어 요소도 올 수 있는 것이다.

(다) N₁-에게는 의문문에서 누구-에게에 대응되고, (N₁+P 데)-에는 용인 가능성이 똑같지는 않으나 (무엇+어디)-에에 모두 대응이 가능한 듯하다.

- (99) -도대체 철수는 요즈음 (무엇+어디)-에 빠져서 저렇게 바쁘니?
-그 너석은 (나비+전봉준 전기+나비 잡으러 다니는 테+새로운 전봉준 전기 자료를 수집하는 테)-에 빠져서 정신이 없다구.

(라) N₁-에 위치에는 특이하게 다음과 같이 인물명사도 온다.

- (100) 철수는 요새 (홍경래+모짜르트+고흐+...)에 빠져 있어.

그러나 이들 인물명사는 의문사 무엇 또는 어디에 대응하는 듯하다. 이러한 관찰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빠지다₁의 주어분포를 정규화하기 régulariser 위해 의거하였던 가정을 활용하여, 이들 인물명사의 환유적 성격(인물명사의 비인물적 성격)을 분석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100)에서 -에 앞의 인물명사는 N₁-의 N₂ (N₁은 인물명사, N₂는 전기, 행적, 인간성 또는 음악, 그림, 작품등의 사물명사) 구성을 갖는 복합명사구로부터 재구조화/격정명사구 삭제등을 거쳐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¹¹⁾

(마) 빠지다₂가 선택하는 P 데-에 연쇄는 앞의 빠지다 구문에서 언급하였던 관계절+장소의 형식명사 데-에로 분석할 수 없다. 예문 (8)이나 (99)는 이 점을 자명한 것으로 보여 준다. 이 연쇄는 다음의 동사/형용사 구문을 특징짓는 보문과 똑같은 지위를 갖는다.¹²⁾

- (101) ㄱ. 한국의 학생운동은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에 (큰 뜻을 했다+크게 (기여+공헌) ~했다).

ㄴ. 한국어 어휘의 총체적인 언어학적 기술은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대규모 전산사건을 구축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 (101) ㄱ.-ㄴ.의 P 데-에는 모두 의문문에서 무엇-에/어디-에에 대응한다.¹³⁾

(바) 빠지다₁ 구문은 빠뜨리다 구문과 상관시킬 수 없으나,¹⁴⁾ 규칙적으로 -어 있다를 적

11) 사물명사를 보어로 요구하는 읽다/듣다와 같은 서술어 구문에 나타난 다음 (v) ㄱ.-ㄴ.의 인물명사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ㄱ. 너도 홍명희를 읽어 봤지?

ㄴ. 나는 요새도 하이든만 들어.

12) P 데-에 보문에 대해 자세한 점은 홍재성 1990을 볼 것.

13) 빠지다₂의 명사보어는 격조사의 삭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vi) *윤환이도 한 때 그 (여자+노름+신앙)-E 빠졌었지.

그러나 P 데-에 보어는 다른 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에의 생략이 자연스럽다.

(8)' 정환이는 한 동안 노름하는 데 빠져서 보이는 것이 없었다.

(101) ㄱ' 한국의 학생운동은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큰 뜻을 했다+크게 (기여+공헌)-했다).

빠지다의 구문에서도 P 데-에 보어는 N-에 보어와 달리 -에의 삭제를 용인한다 이와 같이 (95) ㄱ. 과 대조적으로 (4)'이 가능한 것은 흥미있는 점이다.

(4)' 기영이도 잘못해서 훔탕물이 잔뜩 고여 있는 데 빠졌다.

그러나 꼿 구문은 데 구문과 달리 이러한 삭제를 거부한다.

(4)'' *기영이도 잘못해서 훔탕물이 잔뜩 고여 있는 곳 빠졌다.

14) 다음의 자료를 보라.

vii) ㄱ. 영주,의 매력적인 성격은 춘서를 그 여자,에게 (*빠뜨렸다+빠지게 했다)

ㄴ. 윤환이,의 불안정한 성격은 그,를 술과 노름에 (*빠뜨렸다+빠지게 했다).

용할 수 있다.

(102) ㄱ. 철수는 요즈음 영희에게 완전히 (빠졌어 + 빠져 있어).

ㄴ. 기영이는 여러 해를 전봉준 선기를 연구하는 데에 (빠졌었다 + 빠져 있었다).

우리의 논의는 의미론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기술에 머물겠으나, 여기서 빠지다₂의 상Aspect적인 의미특성에 대해 그래도 잠시 언급해두자.

빠지다₂는 일회적인 상태변화(과정)의 의미로는 현재형으로 사용이 어렵다.

(103) ??준서는 (역사책 + 불교)-에 빠진다.

그러나 쉽게, 잘, 결핏하면 등의 부사와 결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 · 습관적) 속성을 표현할 때에는 현재 활용형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104) 윤환이는 (쉽게 + 결핏하면) 여자에게 빠진다.

이러한 유형의 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칭문phrase générique이 가능하다.

(105) 윤환이 같은 성격은 (여자에게 + 신앙에) (쉽게 + 잘) 빠진다.¹⁵⁾

(105) 유형의 문장에는 과거형 빠졌다를 쓰기 어렵다.

(105)' ??윤환이 같은 성격은 (여자에게 + 신앙에) (쉽게 + 잘) 빠졌다.

그런데, 빠졌다가 자연스럽게 쓰인 다음의 문장은 그 해석이 중의적ambigu이다.

(106) 철수는 영희에게 빠졌다.

그 두 가지 해석을 편의상 (ㄱ)상태의 변화 과정과 (ㄴ)변화 결과로서의 상태로 구별하여 표현한다면, 이러한 중의성은 있다, 쓰다류의 동사구문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것과 평행적이다.

(107) ㄱ. 철수는 구겨진 옷을 입었다.

ㄴ. 영주는 안경을 썼다.

두 가지 해석은 조금만 맥락을 명료하게 제시하면 뚜렷이 구별되어 드러난다. 우선, 시점은 나타내는 시간표현이나 과정의 진행을 나타내는 절점과 같은 부사를 사용하면 빠지다는 (ㄱ)의 일회적 상태변화의 과정만을 뜻하게 되다.

(108) 영서는 (처음 만나자마자 + 절점) 그 여자에게 빠졌다.

15) 우리는 빠지다₂ 구문은 인물주어만을 용인하는 것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105)에서 사물주어 성격의 출현은 특이한 것이다. 그러나 앞의 논의에서와 비슷하게 N_i-의 N₀의 복합명사구(윤환이 같은 성격의 사람)를 출처로 가정하고 환유화과정이 적용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사물주어 성격의 분포를 정규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반면에, (102) ㄱ.-ㄴ.의 빠지다는 (ㄴ)의 해석을 갖고, 따라서 빠져 있다 구문과 의미상으로 매우 유사하다. 이 점은 바로 빠지다₁이 사용된 (97) ㄱ.-ㄷ.의 빠져 있다 구문이 빠졌다 구문과의 사이에 의미차이를 보이는 점과 대조를 이룬다고 하겠다. (97)의 경우만을 다시 써서 이러한 관찰을 확인한해보자.

(97) ㄱ'. 철수는 구덩이-에 (빠졌다+빠졌다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빠지다₁의 과거형이 빠지다₂의 그것과 달리, 종의성을 지니지 않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빠지다의 또 하나의 용법을, 특히 예문 (1)-(5)가 보이는 빠지다와 대립시켜, 한정하고 특징지어 보려고 하였다. 우리는 빠지다₂의 용법을 한정하는 데에 관련된 중요한 한 가지 문제—우리가 열린 문제로 남겨두고자 하는—를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또 다른 빠지다의 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문제는 빠지다₂를 기능동사로 분석할 수 있는 빠지다III과 구별하여 정립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능동사 구문을 한정하는 큰 규모의 일반적인 문제의 구체적인 한 국면이 되겠다. 잠정적으로 기능동사로 분석될 수 있을 듯한 빠지다의 사용은 앞의 자료 (44)-(55)의 문장들이 예시한다. 이 유형의 구문에 대한 분석은 우리 논의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를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문제를 언급하는 정도로 그치려 한다.

빠지다를 내포한 예문 (6)-(10)에서, N₁위치에 인물명사나 역사책등의 구체명사, 또 템보문이 실현되는 경우는 일단 기능동사 분석과의 상관을 짓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¹⁶⁾ 그러나 신앙(9)이나 환상(10)과 같이 비교적 용이하게 논리·의미상 술어 prédictat의 명사적 투사로 분석될 수 있는 추상명사가 N₁-에 보어로 쓰이면,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듯하다. 신앙을 용기와 같이 일항술어 (논항 X는 신앙을 가진 사람)로, 환상을 원한과 같은 이항술어 (제 1 논항 X는 환상을 갖는 사람, 제 2 논항 Y는 X가 갖는 환상의 대상)로 본다면, 이들 서술명사가 단문구조에 실현될 때, 다음과 같이 기능동사 갖다를 선택하는 구문을 구성한다.

(109) 경희는 신앙을 갖고 있다

(110) 기영이는 (혁명+영주)-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다.

(110)에서 환상의 제 2 논항의 통사적 실현인 N-에 대해 보어 위치에는 인물명사/사물명사의 분포가 가능하다. (110)은 전형적인 (중립표준) 기능동사 구문의 속성을 보여준다. 술어 환상이 목적어 위치에 놓이고, 제 1 논항 기영이는 주어, 제 2 논항 혁명/영주는 환상을

16) 기능동사 구문은, 일반동사처럼 술어의 성격을 갖는 명사인 서술명사 nom prédicatif가 보어(또는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단문으로 정의되므로, N₀ 위치에 인물명사가 오고 N₁ 위치에 구체명사나 보문이 실현되는 문장들을 우리의 현 단계의 논의에서는 비기능사구문으로 기술된다.

핵으로 하는 명사의 보어로 명사구 성분으로 통합되지 않고 통사적으로는 갖다의 보어로 분석될 수 있는 -에 대해 연쇄로 나타난 점이 그것이다. (110)에 대해 특히 (110)'가 가능하여 환상을 갖고 있다 구문은 이중구문의 속성을 보이는 것이다.

(109)' 기영이는 (혁명+영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신양과 환상은 사랑이나 결망같이 N-하다형의 단일동사 (또는 형용사)와 대응은 없으나, 용기(용기를 갖다)나 원한(원한을 품다)처럼 기능동사구문은 가능한 서술명사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지지해 줄 또 다른 관찰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신양이나 환상은 명사구의 핵으로 N-의 형태의 보어를 거느릴 수 있다.

(111) ㄱ. 정희의 신양

ㄴ. 기영이의 환상

이때 (111) ㄱ.-ㄴ.의 연쇄는 그 해석의 중의성이 없이 정희가 가진 신양, 기영이가 가진 환상에 대응되어, N인 정희와 기영은 각각 신양과 환상의 제 1논항의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속성을 바로 이들 두 명사의 술어적 성격을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인 것이다.

환상은 이항술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논항이 모두 환상을 핵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명사구의 보어로 실현되면 다음의 구성을 갖게 되는 점도 지적해두자.

(111) ㄴ'. (영주+혁명)-에 대한 기영의 환상

우리는 그런데 명백히 기능동사 구문의 성격을 갖는 (109), (110)에 대응해서 각각 (9), (10)의 빠지다 구문이 가능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편의상 이들 두 쌍의 문장을 대응이 더 분명히 드러나도록 조금 변경을 가해 (112)/(113) ㄱ.-ㄴ.으로 다시 써서 표현하고 논의를 진행시켜 보자.

(112) ㄱ. 정희는 신양을 갖고 있다.

ㄴ. 정희는 신양에 빠졌다.

(113) ㄱ. 기영이는 혁명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ㄴ. 기영이는 혁명에 대한 환상에 빠졌다.

이렇게 (112)/(113)의 ㄱ. 문장과 ㄴ. 문장을 대조시킬 때,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ㄴ. 문장의 빠지다의 성격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능한 두 가지 분석 중 하나는 그것을 기능동사 갖다의 상 aspect적 변이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확장기능동사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 기능동사 빠지다의 전형적 용법은 예문 (44)-(45)가 보여준다. (44)-(45)는 각각 (44)'-(45)'의 중립표준기능동사 하다구문에 대응된다.

(44)' 칠수는 영희와 (서로+E) 사랑을 했다.

(45)' 윤환이는 절망을 했다.

또 하나의 분석은, 그것을, 그 자체로 술어적인 성격을 가진 일반 자유동사로서 예문(6)-(8)의 빠지다와 동일한 동사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자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9)/(10)의 빠지다는 (44)/(45)의 빠지다와 달리 일반 자유동사 빠지다₂로 한정하는 분석을 채택하는데, 사실, 현재까지의 관찰로는 이 두 분석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타당한 것인지를 선택하게 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난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 단계에서 활용되는 기능동사 개념 자체가 불명료한 국면을 지니고 있는 데에서 연유하는지도 모른다. 적관적인 의미판단으로만 (9)/(10), 또 (112)/(113) ㄴ.의 빠지다와 (44)/(45)의 빠지다를 대조시켜 구분하는 것은 매우 미묘한 문제이다.

한편 (112)/(113) ㄴ.의 문장들이 기능동사구문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것도 사실이다. 즉, 목적보어 위치에 실현된 신양/환상은 서술명사로 분석될 수 있고, 그 제1논항이 통사적으로 주어기능을 수행하며, 이들 문장들은 각각 술어 신양/환상을 특징짓는 필수적인 논항만 실현된 단문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9)-(10)의 빠지다를 기능동사가 아닌 일반 자유구문의 빠지다₂로 분석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무엇+어디) 의문사 대용

기능동사구문에서 보어를 거느리지 않는 서술명사는 의문문 초점이 되기 어려우나, 신양, 환상은 인물명사/구상명사와 마찬가지로 (무엇+어디)에 대응될 수 있다. 다음에서 (114)/(115)와 (116)을 대조해 보라.

(114) ^{??} { —경희는 무엇을 갖고 있니?
—신앙을 갖고 있어.

(115) * { —기영이는 혁명에 대해 무엇을 갖고 있니?
—환상을 갖고 있어.

(116) { —준서는 도대체 (무엇+어디)-에 빠져서 저렇게 딴 사람이 됐니?
—(신양+혁명에 대한 환상)-에 너무나 깊이 빠져서 그렇게 된거야.

—미치다 구문 대치

빠지다₂는 또 다른 일반자유동사 미치다와 동의관계를 이룬다.

(117) 철수는 영희에게 완전히 (빠졌어+미쳤어).

(118) 준서는 (역사책+고흐+노름하는 데)-에 (빠져서+미쳐서)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어

서술명사 신양이나 환상도 (119) ㄱ.-ㄴ.에서처럼 미치다의 N-에 보어 위치에 쓰일 수 있다. 이때 (119) ㄱ.-ㄴ.은 각각 (9)-(10) 문장과 같은 의미해석을 갖는다.

(119) ㄱ. 윤환이는 신양에 미쳐서 한동안 기도원에 들어가 생활을 했었다.

ㄴ. '기영이는 혁명-(의+에 대한) 환상에 미쳐서 일찍부터 지하운동에 가담했다.

그러나 기능동사 구문 (44)-(55)에 대해서는 빠지다 대신 미치다를 사용할 수 없다.

(120) ㄱ. 윤환이는 절망에 (빠져서+*미쳐서) 몸부림쳤다.

ㄴ. 순희는 깊은 잠에 (빠져서+*미쳐서) 아무 것도 몰랐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기능동사 빠지다와 빠지다₂의 의미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능동사 빠지다에는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열중하게 되다'의 해석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4)의 사랑구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미치다의 대치가 가능한 듯도 하다.

(121) *철수는 영희와의 사랑에 미쳐서 유학을 포기해 버렸다.

(121)의 용인 가능성acceptabilité이 이렇게 높은 것이라면 사랑의 제이논항인 영희가 사랑명사구 보어로 실현되는 문장에서 미치다의 사용이 어째서 가능한가는 대단히 흥미있는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44)가 예시하는 사랑을 보어로 선택하는 빠지다 구문이 기능동사 구문으로 분석될 수 있음을 분명하다.

(44)는 사랑의 제이논항이, 명사구 밖에 통사적으로 빠지다의 보어로 분석될 수 있는 N-와연쇄로 나타난 문장이다. 이에 대해 N-와가 명사구 속에 사랑의 보어로 통합된 다음의 문장이 가능하다.

(122) 철수는 영희와의 사랑에 빠졌다.

다시 말해 (44) 빠지다 구문은 기능동사구문의 전형적인 특성인 이중구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개략적인 관찰이 (9)-(10)의 빠지다를 비기능동사로 기술하는 잠정적인 분석의 근거가 되겠는데, 우리는 이로써 논의가 완결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빠지다₂의 보어위치에 분포가능한 노를, 경마, 도박과 같은 부류의 명사에 대한 술어적 성격의 여부문제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후반부에서의 논의를 위해 거론하지 않은, 문제의 중요한 국면도 있다. 우리는 미진한 부분은 빠지다 기능동사 구문을 다룰 때 다시 논급하기로 하고 일단 빠지다₂의 검토는 여기서 그친다.

3. 2. 빠지다 II.

3. 2. 1. 빠지다₃

빠지다II는 대체로 분리·이탈 또는 부재나 결핍등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데, 보어의 존재유무, 보어의 형태(격조사의 형태에 따른), 기능적 통사위치의 분포적 속성, 구문 사이

의 대응관계등 단문구조의 통사적 속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그 여러 용법을 분석하면, 빠지다₃에서 빠지다₈까지 여섯 단위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다. 빠지다₃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구문에 의해 특징지을 수 있는 V_{mt}의 하나이다.

(123) N₀ P-려 N₁ -Loc 빠지다

다시 말해 빠지다₃은 -려 연결어미문과 결합이 가능한, N₀의 능동적 actif인 공간상의 이동—기점으로부터의 이탈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우리는 Hong 1985에서 (123)의 구문에 의해 한정되는 180여개의 순수한 국어이동동사 V_{mt}의 구문을 자세히 기술한 바 있다. 그런데 Hong 1985에서 작성된 V_{mt} 목록에는 빠져나가다/빠져나오다는 들어 있으나, 빠지다는 빠져 있다. 우리는 V_{mt}를 낱낱이 한정하는 데에서 빠지다₃을 빠뜨렸던 것이다. 그러나 예문 (11)-(12)가 보이듯이 빠지다₃은 -려 보문을 용인하므로 V_{mt} 부류에 귀속된다. 또 이 점으로부터 빠지다₃이 지닌 V_{mt}로서의 흥미있는 공통적 속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은 -려 보문과 양립하는 교통기관 명사주어의 분포이다[예문(2)와 대립되는 예문(12) 참조].

-려 보문 이외에 빠지다₃은 V_{mt}를 특징짓는 장소보어를 선택한다. 보어의 표시로는 (12)-(13)이 보이듯이 -에서와 -로 나타나고, -에는 불가능하다.

(124) *(기영이+영주가 탄 차)-는 (회의장+뒤+옆길+…)-에 빠졌다.

N-(에서+로) 연쇄의 장소보어적 성격은, 빠지다₁의 구문을 기술할 때와 동일하게 명사분포, 명사구 내적구성 또는 어디 의문문 대응, 거기에 의한 대리 가능성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V_{mt}의 하나로서 빠지다₃을 분석할 수 있으나, 그 구문을 더 세밀히 특징짓기 위해서는 V_{mt} 구문 전체의 테두리에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한두 가지만 지적하는 것으로 그친다.

—예문 (11)에서와 같이 빠지다₃의 구문에는 N-에서와 N-로 두 연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빠지다₃은 다음의 떠나다나 향하다와 공통점을 갖는다.¹⁷⁾

(125) 우리들은 대전에서 광주로 (떠났다+향했다).

문제는 N-에서 N-로 연쇄를 별개의 두 보어인가 또는 복합적 구성의 단일보어인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우리는 V_{mt} 구문에서의 N-로 연쇄를 방향의 보어와 경로어 보어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에 따라 빠지다₃ 구문의 N-로 연쇄의 성격도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7) 이 두 동사는 또한 -에 보어를 허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함께 광주-(로+*에) (떠났다+향했다).

3. 2. 2. 빠지다₄

빠지다₄의 전형적인 쓰임새는 예문 (15)와 같은 문장이 보여 준다. (15)만을 관찰한다면, 빠지다₄를 통상적으로 보어를 선택하지 않는 내재적인 자동사 (의미상으로는 일항술어)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5) 유형의 예문에 의거하여, 빠지다₄가 적관격으로 ‘공간상의 일정한 지점(또는 부위)에 고정된 대상의 그 지점으로부터의 분리 · 이탈운동’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이 동사는 이항술어로 분석되며 이동의 기점 point initial으로 해석되는 제이 논항이 통사적 차원에서 보어로 실현되지 않는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16)의 예문들은 이러한 관찰이 부정확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동사를 통사적으로 특징짓는 단문인 최대구조는 (126)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26) N₀ N₁-Loc 빠지다
(Loc=-에서, -로)

(126)에 따르면, 빠지다₄는 -련 보문과 양립이 불가능하고 N₁-Loc를 보어로 선택하는 점에서 빠지다₁과 형식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다. 두 빠지다의 근친성을 보여주는 빠지다₄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빠지다₄ 구문에서 N₁의 장소보어적 성격은, 빠지다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소명사/대명사 또는 데 관계절의 분포 및 어디 의문문 대응등의 속성에 의해 쉽게 확인될 수 있다. 또 주어위치의 분포는 사물명사에 국한된다. 인물명사를 내포한 (17)ㄱ.의 이중주격 구문이 특이성을 보이는데, 그것은 복합명사구 주어의 (17)ㄴ.으로부터 재구조화에 의해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빠지다₁의 (5)ㄱ. 구문과 평행적이다.

그러나, 빠지다₄는 그 의미해석에 있어서 대척적이라 할 만큼 빠지다₁과 차이를 보인다. 더우기 보어 N₁-Loc는 빠지다₁ 구문의 그것과는 다음과 같이 다른 행태를 갖는다.¹⁸⁾

빠지다₄ 구문에서는 -로 보어만 가능하고 -에 보어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에서 보어가 가능하다. 특이한 점은 맥락에 따라서 이들의 삭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15), (17), (18)의 문장에 사용된 빠지다₄의 의미를 분석하자면, 기점으로 해석되는 제이논항 (발바닥, 머리, 잇몸)을 상정하게 될 터이지만, (18)이 보여주듯이 그 통사적 실현은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다. 우리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제약에 대하여 특히 (18)에 -에서 연쇄가 나타나기 어려운 점은, 정보의 임여성에 입자하여 적정명사구 삭제와 유사한 삭제의 기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여기에 대한 더 적절한 분석이 찾아질 때, (126)구조의 가정은 더욱 근거를 얻게 될 것이다.

한편, 빠지다₄ 구문에 나타나는 -에서와 -로 연쇄는 각각 기점과 방향의 보어로 해석되

18) 빠지다₄와 빠지다₁은 모두 N₁-로 보어를 허용하고, 동일한 사물명사(예컨대 릇, 나사, 나사못 등)의 주어분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16)ㄷ.은 중의적이다.

는데, 빠지다₃의 구문에서와 유사하게 그 동시적 실현이 가능한 점도 지적해둘 만 하다.

(127)' 이 뜻이 어디서 이리로 빠졌지 ?

마지막으로 빠지다₄를 빠지다₁/빠지다₃과 구별시켜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속성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빠지다₄ 구문이 사역적 의미를 지닌 타동사 빼다/뽑다 구문과 규칙적으로 대응하는 점이다.

(128) ㄱ. 철수는 발마탁에 박힌 (가시+사금파리)-를 겨우 (뺐다+뽑았다).
 ㄴ. 이 나사못을 (빼라+뽑아라).
 ㄷ. 영주는 어머니의 흰 머리를 뽑아 드렸다.
 ㄹ. 오늘은 치과에서 이를 (뽑+빼)-기로 한 날이다.

이상의 논의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료 (15)-(18)이 제시하는 빠지다 동사의 쓰임새를, 공간상의 대상의 운동을 나타내는 점에서 그것과 상관을 가질 수 있는 빠지다₁이나 빠지다₃의 사용과 명확히 구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2. 3. 빠지다₅

빠지다₅ 역시 하나의 보어만 선택하는 자동사이다. 보어의 형식적 표지는 -에이고, 보어 위치에는 명사 이외에 문장적 성격의 데 연쇄가 올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빠지다₅가 실현되는 단문구조는 (129)로 표시된다.

(129) N₀ (N₁+P 데)-에 빠지다

그런데 이 구문은 규칙적으로 부정 négation을 내포한 V_{mt} (가다/나가다/오다/나오다...) 구문에 의한 환언 paraphrase이 가능하다.

(19)' 나는 오늘 (학교+강의+그 모임...)~에는 안 (가겠어+나가겠어)

(20) ㄱ'. 나는 술 마시러 가는 데에는 안 (갔다+따라갔다)

ㄴ'. 나는 이번에 경환이네 집에서 모이는 데에는 안 (가겠어+나가겠어).

따라서 빠지다₅를 V_{mt}로 분류하고 (129)에서의 (N₁+P 데)-에 연쇄를 종점의 장소보어로 특징짓는 분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연쇄는 V_{mt}의 장소보어와 몇 가지 평행적인 속성을 보이기도 한다

(가) 그것은 장소의 의문사 및 부정 대명사 어디 및 조응적 장소 대명사 거기와 대응된다.

(130) ㄱ. 기영이는 어디엔 빠지겠다고 그러니 ?

ㄴ. 윤환이는 술을 마신다면 어디에도 빠지려고 하지 않는다.

ㄷ. 나는 너무 피곤해 거기는 빠지겠어.

(나) -에를 삭제 할 수 있고, 한편 -에 뒤에 양태조사 -를을 자유로이 부착할 수 있다.

- (131) ㄱ. 너 오늘 (학교+강의+그 모임)-❖ (빠지+가)-근거야?
 ㄴ. 아니, 네가 그 모임에를 (빠지+가)-면 어떻게 해?

(다) N₁ 위치에는 (16), (21)의 자료에 나타난 학교, 강의, 모임, 회의 이외에 다음과 같은 열린 목록의 명사들을 사용할 수 있다.

- (132) 특강, 강습, 수업, 위원회, 이사회, 발표회, 집회, 시위, 농성...

이들 명사는 V_{mt}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19)' 이외에 (133)가 이 점을 보여준다.

- (133) ㄱ. 기영이는 오늘 오랫만에 (수업+집회+이사회…)-에 나갔었다.
 ㄴ. 영주는 오늘 (시위+농성+발표회…)-에 안 나왔다.

(라) 빠지다₅ 구문의 보어는 (21)이 보이듯이 -에/-을의 변이가 가능하다. 따라서 (21) 유형의 문장은 -을의 지위에 대한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을을 대격 조사로서 목적어 표지로 분석한다면, (21)은 빠지다₅의 타동사 용법을 예시하는 문장이고, 따라서 빠지다₅는 -에/-을의 교체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자·타 양용동사로 분류하게 될 것이다.¹⁹⁾ 그러나 우리는 빠지다₅ 구문의 -에/-을 교체를 다음과 같은 V_{mt} 구문에서의 현상과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 (134) 한국의 탐험대도 남극-(에+을) 갔었다.

(134)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택한다.

-을은 어떤 유형의 문장성분을 초점화시켜 그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는 기능을 가진, -는, -도, -만과 같은 계열의 특수조사이고, 남극을 연쇄는 남극에 연쇄에 이러한 강조사 -을이 첨가된 후(남극에를), 격조사 -에가 삭제된 것으로, 그 통사적 지위는 목적보어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21) ㄱ.-ㄴ. 문장의 -을 연쇄의 성격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포한 이들 문장은 자동사 빠지다₅의 용법으로 통합되고, 또 한편 빠지다₅의 V_{mt}와의 접근도 더욱 가능한 것이다.

(마) 빠지다₅와 양립이 가능한 P 에 연쇄는 위의 (20) ㄱ.'-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V_{mt} 구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바) 또 빠지다₅는 능동적 해석의 인물명사만을 주어도 선택하는데, V_{mt}와 유사하게 교통기관 명사주어를 허용하는 듯하다.

- (135) 신한운수 소속의 택시들만 여의도 광장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는 데에 빠졌다.

이러한 관찰들은 빠지다₅와 V_{mt} 사이의 명백한 관련성을 증명해 주는 듯하며, 따라서 성

19) 다음의 타다는 이러한 성격의 동사이다.

ix) 기영이는 차-(에+를) 탔다. (홍재성 1987, pp. 65-78 참조)

급하게 빠지다₅를 중점으로의 이동을 부정하는 의미의 V_{mt}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은 이 동사는 형식적인 어휘 부류로서의 V_{mt}로 한정될 수는 없다. (129) 구문은 V_{mt}를 특징짓는 -러보문을 용인하지 않는다.

- (136) ㄱ. *기영이는 춘서를 만나러 그 모임에 빠졌다.
 ㄴ. *영주는 기영에게 그 말을 전하러 친구들이 모이는 데에 빠졌다.

이와 같이 빠지다₅는 V_{mt}와의 깊은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보문과의 양립불가능성으로해서 V_{mt}부류에 귀속시킬 수 없는 자동사로 한정된다.

이제 빠지다₅ 구문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빠지다₅와 V_{mt} 두 구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 종점의 장소보어와 유사성을 보이는 (N₁+P 테)-에 보어의 성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이 연쇄는, 앞에서 열거한 여러 관찰에 의하면 V_{mt} 및 빠지다₁ 유형의 구문에 나타나는 종점의 장소보어와 흡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두 유형의 연쇄를 동일시하여 성급하게 그 성격을 단일화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일이라고 본다. 그것은 빠지다₅의 -에 연쇄가 다음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사) N₁ 위치에는 가다/오다등의 V_{mt} 구문의 종점보어로 쓰이는 시장, 다방, 사무실, 집, 산, 바다 등 구체적인 장소를 지칭하는 장소명사가 올 수 없고 N-의 (안+앞+아래+…) 유형의 복합적 공간 표현도 올 수 없다. 빠지다₁ 구문은 N₁-에 보어는 바로 이러한 분포적 성격을 갖는 종점보어임을 이미 분명이 논구되었다.

- (137) ㄱ. 나는 오늘 (시장+사무실+집…)-에 (*빠지겠어+안 가겠어).
 ㄴ. 철수는 그날 학교 앞에 (*빠졌다+안 나왔다).

(아) N₁ 위치에 실현되는 명사는 (132)의 목록을 포함하여 학교, 강의, 모임 등의 부류이다. 이들 명사는 시장, 다방 등의 부류와는 명백한 대조를 이루므로 단순한 장소명사로 특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공통된 의미를 개략적으로 표현한다면, ‘구체적인 장소에서의 사람들의 모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빠지다₅의 보어명사를 특징짓기 위해서, N₁-에서 보어의 실현으로 한정되는 빠지다₆의 경우를 잠시 앞당겨 살펴 보자.

빠지다₆은, N₁-에서 보어를 태하기는 하지만 인물주어만을 허용하고 N₁ 위치에는 (23)에서처럼 모임, 동아리, 비밀결사 등의 명사가 나타난다. 이러한 명사분포는 빠지다₅ 구문의 그것과 사이에, 의미상의 유사성뿐 아니라, 명백한 공통부분을 보여준다. 모임의 사용이 이 지적을 뒷받침해 주고, 또 (132)의 목록중에서 이사회나 위원회 등도 그러하다.

- (138) ㄱ. 나는 오늘 이사회에는 빠지겠어.
 ㄴ. 철수는 이사회에서 빠졌다.

나머지 명사들은 다음과 같이 빠지다₅/빠지다₆ 구문에 대해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139) ㄱ. 나는 (학교+강의+수업+집회+…)-(에+*에서) 빠지겠어.

ㄴ 철수는 그 (동아리+비밀결사+단체+조직+…)-(*에+에서) 빠졌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두 유형의 명사는 모두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데, 빠지다₅의 보어로 선택되는 명사는 앞서의 지적대로 (ㄱ) ‘일정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람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반면에, 빠지다₆의 보어명사는 (ㄴ)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구성을 의도하는 단체/조직으로서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한정할 수 있다. (ㄱ)/(ㄴ)의 구분은, 맥락에 따라 주로 서술어(동사나 형용사)의 의미적 성격이나 한정 détermination의 성격 등의 변수에 따라—지시적 양상 modalités référentielles 차이가 지는 두 가지 의미에 해당된다. 두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모임이나 위원회는 (ㄱ)/(ㄴ)의 의미해석이 모두 가능한 다의어 polysème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모임은 (140)의 문장들에서는 (ㄱ)의 의미로, (141)의 문장들에서는 (ㄴ)의 의미로 해석된다.

(140) ㄱ 오늘-(의+E) 모임은 12시에 있다.

ㄴ. 오늘 나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141) ㄱ. 우리는 한국어 서술명사 연구를 위한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다+구성하였다).

ㄴ. 영서는 그 모임에서 탈퇴했다.

마찬가지로 모임은 빠지다₅의 (14) 문장에서는 (ㄱ)의 해석을, 빠지다₆의 (23) 문장에서는 (ㄴ)의 해석을 받는다.²¹⁾

이렇게, 빠지다₅의 보어 명사 분포를 한편으로 빠지다₁ 유형의 그것과, 또 한편으로 빠지다₆의 그것과 구별하여, -에 연쇄의 성격을 한정할 수 있는데, 그 결과 드러나는 속성이 바로 빠지다₅ 구문의 흥미있는 특성을 이루는 것이다.

(자) 빠지다₅ 구문의 -에 연쇄의 속성을 검토하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국면은 P 데 분포이다. 우리가 보기기에 빠지다₅ 구문에 나타나는 P 데 연쇄의 통사·의미적 지위의 문제는 별도의 분석이 요구되는 흥미있고 까다로운 주제로 여겨진다. 이 자리에서는 그 두드러진

20)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장들에서 명사 책에 부여되는 여러 의미해석의 차이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여겨진다.

x) ㄱ. 이 책은 어느 서점에나 있다.

ㄴ. 이 책은 걸장이 뺏어졌다.

ㄷ. 이 책은 대단히 재미 있다.

ㄹ. 기영이는 그 문제에 대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1) 다음과 같은 V_{mt} 구문에서는 모임이 나간다의 해석에 따라 한 문장 내에서 두 가지 뜻을 다 표현 할 수 있다.

xi) 나도 그 모임에 나간다.

여기서 나간다가 일회적인 행동으로서 참석하다의 뜻이면, 모임은 (ㄱ)의 해석을, 지속적인 행동으로서 참여하다의 뜻이면 (ㄴ)의 해석을 받는다.

특이한 성격을 간단히 언급만 하겠다.

(20) ㄱ.-ㄴ. 이 내포한 문장적 성분 P 데는, 우선 앞에서 -에 보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지적한 대로, 몇 가지 장소보어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공간상의 구체적 이동을 표현하는 V_{mt} 구문에서의 분포 [예문 (20) ㄱ'.-ㄴ'. 참조].

—어디 의문사 대응.

—에/-를의 변이 [예문 (21) ㄴ. 참조]

또한 빠지다₅ 구문에서, 데와 유사한 장소의 형식명사 곳의 사용이 아주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 (V_{mt}와 빠지다₁ 구문에서는 데/곳의 변이가 자유롭다).

(142) ㄱ. *철수가 술 마시는 곳에 빠질 리가 있나?

ㄴ. *철수는 영희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빠지지 않는다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ㄱ.-ㄴ.의 P 데를 장소의 형식명사 데를 핵으로 하는 관계절로 분석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우선 이 구문에 실현되는 P 데 연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지적해야겠다. 그 하나는 예문 (20) ㄴ. 이 보여 준다. 이 문장을 (143)으로 바꿔쓰고 살펴 보자.

(143) 나는 이번에 정환이네 집에서 모이는 데에는 (빠지겠어+안 가겠어).

(143)의 데는 선행하는 문장의 장소보어를 대리하는 장소의 형식명사로 분석될 수 있을 듯도 하지만, 장소보어 정환이네 집에서의 명시적 출현으로 그와 같은 분석이 용이하지가 않다. 이러한 P 데 연쇄는 다음 예문에 나타나는 P 것 연쇄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144) ㄱ. 영희는 철수가 영화관에서 나오는 것을 마주쳤다.

ㄴ. 기영이는 윤황이가 나가려는 것을 붙잡았다.

ㄷ. 나는 영서가 자는 것을 괜히 깨웠다.

빠지다₈의 용법을 보이는 예문 (38)에도 동일한 성격의 P 것 연쇄가 나타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43)의 P 데 연쇄는 (144) ㄱ.-ㄴ.의 P 것 연쇄와 동일한 범주로 둑어 그 통사적 성격과 어휘적 분포 등의 문제를 자세히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한 유형의 데 연쇄는 (20) ㄱ. 이 예시한다. 이러한 P 데에는 (20) ㄴ.의 그것과 달리 장소보어의 명시적 실현은 없다. 그렇다고 쉽게 관계절 분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문사 무엇에의 대응은 어려우나 빠지다₅ 구문(또는 동사 공헌하다/성공하다, 형용사 필요하다 등의 구문)을 특징짓는 데 보문과 근접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빠지다₅의 P 데에는 시상제약이 있음을 지적해 두자. 문제의 연쇄내에서 동사는 미완료의 해석을 받는 -는 형 어미만 가능하다.

(145) ㄱ. 나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술 (마시는+*마셨던)-데에는 빠졌다.

ㄴ. 나는 내일 술 (마시는+*마실)-데에는 빠질게.

데 관계절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작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상위문의 서술어에 의해 지배되는 관계절내의 시상제약은 관찰할 수 없다. 그것은 보문구조에서 관찰되는 것이다.

(146) ㄱ. 나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술 (마셨던+마실) (데+곳)-을 찾아 보았다.

ㄴ. 나는 친구들이 모여서 술 마시는 (데+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이렇게 보어의 존재 및 그 형식적 특성(조사 -에의 배타적 사용), 주어(능동적 해석의 인물명사)와 보어(강의 등 일시적인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특정부류의 명사나 P-데 연쇄)의 분포적 속성, 그 외에 구조적 속성(-려 보문의 거부)등에 의거하여 빠지다₅의 성격을 기술해 보았다.²²⁾ 우리는 빠지다₅가 이 정도의 논의로 충분히 다른 빠지다와 구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을 일반화하고 또 구별되는 여러 빠지다 사이의 가능한 상관관계를 상정하거나 체계화하는 시각에서 보면 미진한 점이 남아 있다고 보겠다. 예컨대, 빠지다₅는 -려 보문의 수용에 의하여 특정지어지면서 동시에 -에 보어를 선택하는 V_{m1}와 의미상으로나 통사상으로 긴밀한 상관이 있음을 관찰하였는데, 이와 같은 가능한 상관의 양상에 대해서는 바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²³⁾

3. 2. 4. 빠지다₆

빠지다₆은 앞서 빠지다₅의 논의에서 잠시 언급이 되었듯이 다음의 단문구조로 정의된다.

(147) N₀ N₁-에서 빠지다

N₀는 인물명사의 배타적 분포를 갖고, N₁ 위치에는 이미 열거한 바와 같은 도입, 단체, 조직 등 ‘지속적 구성의 의도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의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부류의 명

22) 빠지다₅ 구문에서 (N₁+P-데)-에 보어는 삭제가 가능하다. 우리는 (22) ㄱ. ~ㄴ.의 문장을 보어가 생략된 빠지다₅ 구문의 하위구조로 분석한다.

23) 이러한 시각에서 다음의 사실들을 지적해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빠지다₅를 V_{m1}와 구분시켜 주는 주요 속성으로 -려 보문의 결합 불가능성을 들었다. 그러나 실은 빠지다 구문과 환언 관계를 이루는 부정의 V_{m1} 구문에서도 -려 보문의 수용가능성은 일반적으로 극히 의심스럽다.

xi) ㄱ. 기영이는 그 모임에 (빠졌다+안 갔다).

ㄴ. 기영이는 준서를 만나러 그 모임에 (*빠졌다+*안 갔다).

ㄷ. 기영이는 준서를 만나러 그 모임에 갔다.

xii) ㄱ. 영주는 친구들이 모이는 테에 (빠졌다+안 나갔다).

ㄴ. 영주는 기영이에게 그 말을 전하려 친구들이 모이는 테에 (*빠졌다+*안 나갔다).

ㄷ. 영주는 기영이에게 그 말을 전하려 친구들이 모이는 테에 나갔다.

따라서 -려 문의 실현가능성여부가 빠지다₅와 V_{m1}를 대조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려운 듯하다.

빠지다₅는 V_{m1}로 한정되는 빠지다₅과 마찬가지로 빼다/빠뜨리다와 전혀 대응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V_{m1} 부류의 동사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어휘적 사역 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두자.

사가 온다. 그런데, 인물주어는 능동적/비능동적 두 가지 의미해석을 받을 수 있다. (23)의 문장에서는 능동적 해석이 우세하고, 다음은 이러한 해석만이 가능하다.

- (148) ㄱ. 나는 이제부터 그 모임에서 (빠진다+빠지겠다).
- ㄴ. 철수는 그 조직에서 사정사정해서 겨우 빠질 수가 있었다.

비능동적 해석은 (149)과 같이 중의적인 문장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것은 (149)가 예컨대 제명등의 절차에 의해 자신의 희망이나 의사에 반하여, 철수가 회원이나 조직원의 신분을 잃게 된 과정이나 그 결과된 상태를 표상할 때의 의미에 해당한다. 또는 또 다른 과정에 의해 철수가 해당 모임의 회원이나 조직원의 신분을 얻지 못하게 된 사태, 그 모임이나 조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태를 표상한 경우도 의미한다.

- (149) 철수는 그 (모임+조직)-에서 빠졌다.

이와 같은 해석이 빠지다를 능동적 해석의 빠지다₆과 구분하여 빠지다₆'라고 표기한다면, 이 빠지다₆'은 빠지다₇과 의미상 친근성을 보인다.

빠지다₆은 빠지다₆'과 대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는다.

—빠지다₆'은 주로 과거형 빠졌다로만 실현되고, 특히 현재형이미와의 양립이 어렵다.

빠지다₆'은 이러한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예문 (148) ㄱ. 참조].

—빠지다₆' 구문은 기접의 장소보어 N_i-에서를 선택하는 나갔다/나오다/떠나다류의 V_{mt} 구문과 환원관계를 이룬다. 또 동사 탈퇴하다를 그 동의어로 지적할 수 있다.

- (150) 철수는 그 (모임+동아리+조직)-에서 (나갔다+나왔다+떠났다+탈퇴했다).

따라서 빠지다₆'은 빠지다₅의 경우와 평행적으로 V_{mt} 구문과의 관계를 문제삼을 수 있겠다. 그러나 빠지다₅가 그러하였듯이, 기본적으로 -려 보문을 거부하는 빠지다₆'을 V_{mt}로 분류할 수는 없다.

- (151) ~기영이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려 사회주의 청년연맹에서 빠졌다.

또 -에서 보어 위치에는 구체적인 장소명사의 분포가 차단된다.

- (152) 철수는 (집+사무실)-에서 (*빠졌다+나갔다+나왔다+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다₆'에는 일부 명사에 대해 -에서 대신 -를의 사용이 가능한 듯하다.

- (148) ㄴ'철수는 그 조직을 사정사정해서야 겨우 (빠질+탈퇴 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속성은 바로 떠나다류의 V_{mt} 구문에서 관찰될 수 있다.

(153) 철수가 그 조직을 (떠나+나가+나와) 바린지는 땐 오래 되었다.

V_{mt} 구문에서는 집과 같은 구체적 장소명사가 분포되면 독립게 N-을 구성이 가능하다.

(154) 경희는 집을 (떠나+나가+나오)-ㄴ지가 땐 오래되었다.

여기서 빠지다₅의 (N₁+P 데)-를 연쇄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바와 동일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것은 (148) ㄴ'의 N₁-를 연쇄를 목적보어로 분석할 것인가 또는 N₁-에서 보어가 -를 에 의해 양태화된 형태로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경우에는 두 분석 사이에서의 선택을 유보한다. 근거있는 해결을 얻기 위해서는 V_{mt} 구문에서의 N₁-에서/N₁-를의 교체현상을 좀더 깊이있게 분석해 보아야 하리라 여겨진다.

—빠지다₆은 빠지다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 23) 참조] 타동사 빼다/빠뜨리다와 대응이 없다. 빠지다₆'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빼다 구문이 가능한 듯하다.

(155) 운환이는 우리 모임에서 (빼어 머리자+빼는 것이 어떻겠니?)

이상과 같이 우리는 빠지다₆의 용법을 개략적으로 특징지어 보았다. 그러나 빠지다₆의 충분한 기술을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국면, 특히 빠지다₅나 빠지다₇, 그리고 V_{mt}와의 관계의 문제들이 남아 있다.

우리는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하나만 더 제시하고 빠지다₆에 대한 논의를 끝낸다.

(156) ㄱ 그 조직에는 철수가 빠지면 안 되는데.

ㄴ. 우리 (지회+지부)-에 기영이가 빠졌다가는 일이 안 될걸.

(156) ㄱ. -ㄴ.의 문제는, 이 빠지다를 빠지다₅, 빠지다₆, 또는 빠지다, 종에서 어떤 유형의 빠지다로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는 이 빠지다를 세 유형중 하나에 결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바로 우리의 분류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해보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기서 제시한 분석 작업을 넘어서는 논의를 전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터인데, 우리는 이러한 시도 역시 다음 단계의 작업으로 미루어 두기로 한다.

3.2.5. 빠지다₇

빠지다₇과 빠지다₈은, 앞서 논의한 여타의 빠지다에 비하면, 그 용법을 체계적으로 한정할 수 있기에 불명료한 국면이 많아, 현 단계에서의 관찰과 분석만으로는 충분히 그 가능한 구문을 특징짓기 어려울 듯하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속성만을 개략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빠지다₇은 다른 빠지다와 마찬가지로 의미상으로는 이항술어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형적인 사용은 (24), (25)가 예시하고, 특정적인 단문구조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157) N₀ N₁-에서 빠지다.

이렇게 빠지다₇은 통사적으로는 -에서가 뒤따르는 제1보어를 선택하는 자동사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빠지다₆과 공통성을 보인다. 그러나 빠지다₇의 두 논항의 영역은 빠지다₆의 경우와 전혀 상이하게 한정되고 따라서 그 의미해석이 다르다고 보겠다.

우선 N₀는 비능동적 해석의 사물주어만을 허용한다. (25)에서 인물명사 철수의 실현은, 빠지다₁의 인물주어 경우와 똑같이, 철수의 이름으로부터 재구조화와 적정명사구 삭제 과정을 거친 결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가정에 의하면, 인물명사 주어의 분포가 정규화되고 철수의 환유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빠지다₇의 제이논항의 영역은 한정하기가 쉽지 않다. (24)-(30)의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한편으로 담화나 텍스트, 또 한편으로 이름과 같은 언어적 대상에서 구체적인 물건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사물의 지속적 또는 일시적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특히 이러한 모임은 명단과 같이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그 의미를 어휘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통사적 실현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예문 (30) ㄱ.-ㄴ. 또는 (157) ㄱ.-ㄴ. 을 빠지다₇의 용례로 보고자 한다.

(157) ㄱ. 빠진 물건이 없나 잘 살펴 보아라.

ㄴ. 연필이 한 자루 빠졌다.

그것은 이들 구문을 (157) 구조에서 N₁-에서 성분이 삭제된 하위구조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들 예문에서 N₁-에서를 회복시키기 어려운 것은 제이논항을 어휘화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닌가 한다.

예문 (26)은 N₁-에서 보어가 -는이 부착되고 문두위치로 이동하여 주제화된 경우인데, 이때 (27)-(29)가 보이듯이 어떤 명사들에 대해서는 N₁-에서 대신 N₁-에 형태의 실현이 가능하다. N₁-에 형태의 보어는 -는과 함께 문두위치에만 가능하고, 문중의 표준위치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듯하다.

(27)' ??19쪽이 이 책에 빠졌다.

(28)' ??(윤활이-(의+E) 이름+윤활이)-는 이 명단에 빠졌다.

-에서/-에의 변이가 N₁의 명사분포에 따라 정말 제한적인지, 두 형태에 대응되는 의미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문중위치에서 N₁-에의 출현은 왜 제약이 있는지 등등의 문제는 따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빠지다₇,은 빠지다₂와 유사한 상Aspect적 특이성을 보인다. 위의 (24)-(30) 예문들에서 모두 과거형이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행동이나 과정에서 결과된 상태의 의미해석을 받

는다. 현재형의 사용은 제약이 있다.

(24)' *이 (책+논문)-은 참고문헌 목록에서 빠진다.

(26)' *그의 (글+논의)-에서는 이 점이 빠진다.

(27)' *이 책-(에+E)-는 19쪽이 (빠진다+빠지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반복상을 나타내는 (158)이 가능하고, 또 과거사태를 현재화하여 표현하는 문체적 기법이 적용되는 특별한 담화적 맥락에서는 (159)도 가능하다.

(158) 윤환이-(의 이름+E)-은 숙정 대상자 명단에서 (번번이+매번+잘도) 빠지네.

(159) 윤환이-(의 이름+E)-은 우여곡절끝에 결국 숙정대상자 명단에서 빠진다

또 빠지다₂의 경우와 평행적으로, 빠졌다₇에는 (29)가 보이듯이 -어 있다가 적용될 수 있고 또 -어 있다 구문은 빠졌다 구문과 환언 관계를 이룬다. 단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어 있다 구문은 N₁-에서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4)'' !!이 (책+논문)-은 참고문헌 목록에서 빠져 있다

(25)'' 윤환이-(의 이름+E)-은 숙정 대상자 명단에서 빠져 있다.

빠지다₇은 한편 ‘부재’를 나타내는 없다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보어로 N₁-에를 택할 때 빠졌다 구문은 대체로 없다 구문과 대응시킬 수 있다.

(160) ㄱ. 이번 숙정대상자 명단에는 (윤환이-(의+E)-이름+윤환이)-가 (빠졌다+없네).

ㄴ. 이-책(에+E)-는 19쪽이 (빠졌다+없다).

우리는 과거형 빠졌다가 어떤 행동이나 과정의 결과된 상태의 의미해석을 받는 것으로 기술하였는데, 그 상태는 바로 ‘부재’의 상태이다. 따라서 없다와 환언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빠지다는 관념적으로 선행하는 행동이나 과정을 함의 implication하는 점에서 없다와는 구별될 수 있을 듯하다. X가 Y에서 빠졌다, 면,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Z)가 X를 Y에서 빼거나 빠뜨[트]린 것이다. 실제로 빠지다₇은 타동사 빼다/빠뜨[트]리다 구문과 규칙적으로 대응하는데, 이들 동사가 빠지다에 선행하는 행동이나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점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빠지다₇의 중요한 속성이다.

(161) 철수는 참고문헌 목록에서 이 (책+논문)-을 (뺐다+빠뜨[트]렸다).

(162) 정희는 (윤환이-(의+E) 이름+윤환이)-를 숙정 대상자 명단에서 (뺐다+빠뜨[트]렸다).

우리는 (161)-(162)에서 빼다/빠뜨[트]리다의 의미가 차이지는 것을 관찰한 수 있다. 빼다는, 죽이다와 평행적으로, 사역의 복합표현 빠지게 하다에 대응되는 사역동사로 분석될 것이다. 빼다의 주어는 X가 빠졌다로 표상되는 사태의 유발에 직접적·적극적으로 개입하

는 행위자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반해 빠뜨[트]리다는 인물주어를 택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역 할을 말하자면 경험자 experienter로 특정지어질 수 있는 소극적 성격을 지닌다. 그 구문에는 빼다와는 사용하기 어려운 부사 잘못해서, 실수로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빼다/빠뜨[트]리다 구문을 별도로 다루는 기회에 검토해 보기로 미루어 둔다. 현 단계에서 빠지다₇의 의미는, 이 두 동사와의 대응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제외의 행동의 결과된 상태나 소극적인 부주의나 망각의 과정(?)으로부터 결과된 상태로서의 부재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빠지다₇은 이 상과 같이 사물주어의 분포, -에서/-에의 교체를 보이는 보어의 존재, 빼다/빠뜨[트]리다와의 대응등의 속성을 갖는 자동사로 한정되어, 여타의 빠지다와 구분이 가능하다.

3. 2. 6. 빠지다₈

빠지다₈은 일견 (163) 유형의 자동사 구문에 투사되는 이항술어로 특징지울 수 있을 것이다.

(163) N₀ N₁-에 빠지다

이와 같이 가정하고, 사물주어 분포 및 N₁의 장소명사적 성격을 함께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빠지다₈을 빠지다₁과 접근시킬 수 있을 듯하나, 사실은 통사·어휘적 속성이나 의미 해석이 매우 특이해서 두 빠지다는 대조시키는 것마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빠지다₈과 양립하는 N₁-에 보이는 항상 N₀에 선행하여 출현한다.

- (164) ㄱ. 공에 바람이 빠졌다.
- ㄴ. *바람이 공에 빠졌다.

N₁-에 보어의 위치상 제약을 다음의 나다/슬다 구문에서도 볼 수 있다.

- (165) ㄱ. 손에 땀이 났다.
- ㄴ. *땀이 손에 났다.
- (166) ㄱ. 칼끝에 녹이 슬었다.
- ㄴ. 녹이 칼끝에 슬었다.

N₁-에 열쇠의 이러한 순서제약은 빠지다₈의 특성을 이룬다. 빠지다₇을 제외하면 [예문(27)'-(28)' 참조], N₁-에를 선택하는 여타 빠지다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관찰할 수 없다.

N₀는 사물주어로 특징지어 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은유 métaphore적 해석으로 가능할 듯하다.

- (167) ㄱ. '대합실에 사람들이 이제야 다 빠졌구나 !
- ㄴ. '마지막 야당후보가 등단했을 때에는 유세장에 동월된 청중들이 다 빠져버린 뒤였다.

빠지다₈ 주어의 명사분포는 개방적 목록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게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특징화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N₁ 위치에 명사와 강한 개별적인 의미상 호응관계를 이루는 점이다. 다음의 자료는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해 준다.

- (168) ㄱ. 방에 (냄새+*바람)-가 다 빠졌다.
 ㄴ. 바퀴에 (*냄새+바람)-이 빠졌구나!

N₀와 N₁ 사이의 의미관계는 실제로 N₁-의 N₀ 구성이 가능할 뿐 아니라, (31)-(35) 자료가 보이듯이 이 복합 구성이 주어위치에 실현되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게 긴밀하다. 따라서 빠지다₈은 (169) 구문에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 (169) N₁-의 N₀ 빠지다

위에서 인용한 나다/슬다 구문은 (169) 유형의 구조가 불가능하다.

- (170) ㄱ. *손의 땀이 났다.
 ㄴ. *칼끝의 녹이 슬었다.

이와 같이 보면, 빠지다₈은 통사적으로 (163) 구문과 (169) 구문 사이의 규칙적인 대응 관계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고 보겠다. 여기서 빠지다₈을 이제까지의 여타 빠지다와의 구분을 명백히 해주는 통사적 특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N₀, N₁의 명사분포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이므로, 빠지다₈ 구문의 사전적 기술을 위해서는, 이들 명사를 빈틈없이 열거하여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에서 이들 명사를 몇 가지 작은 부류로 나누어 낱낱이 지적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가 채택한 분류는, 부류에 따른 한두 가지 특이한 속성의 차이를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깊은 근거는 없는 잡정적인 예시일 뿐이다. 또한 빠지다₈ 구문은 N₀ 위치의 명사분포가 특이하게 제한적인 점에서 —특히 예문(34)의 맥이나 예문(43)의 무를이 분포된 경우—, 속어동사구문의 성격을 보이는 국면도 있으나 이 점은 빠지다의 관용구문을 문제삼을 때 살펴 보기로 한다.

이제 빠지다₈이 N₀/N₁ 위치의 명사분포에 따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세세한 속성을 지적해 둔다.

—앞에서 제시된 (31)-(43) 자료에 의거할 때, N₀가 맥이나 밀, 무를인 경우를 제외하면, 빠지다₈ 구문은, 조금씩 구체적 양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타동사 빼다 구문과 대응이 가능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 (171) ㄱ. 빙-(의+에+에서+을) 냄새를 더 빼야겠구나.
 ㄴ. 오늘 너 너무 (기운+힘+*매)-을 빼는 것 같다.
 ㄷ. 너는 아무래도 몸-(의+에+?'에서+*을) 살을 더 빼야겠다.
 ㄹ. 특히 이 바지-(의+에+?'에서+를) 때를 잘 빼주세요.

ㅁ. 주사를 맞던지 약을 먹던지 해서 부기를 빨리 빼야지.

—(31)-(34) 유형의 예문에서는, N₁-에 보어대신, 동일한 명사분포에 대하여 N₁-에서 보어의 실현이 가능한데, 두 보어의 분포 조건이나 그에 따른 의미의 차이 등에 문제는 좀더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빠지다₈ 구문의 주어위치는 복합명사구 N₁-의 N₀의 분포가 정규적인데, 여기에 재구조화를 적용시켜, 앞의 자료가 폭넓게 보여주는 이중주격구문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36) ㄱ.-ㄴ.은 살의 적정 명사구가 삭제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N₀가 살인 경우는 세 개의 N-의 연쇄를 내포한 삼중주격 구문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문은, 주어명사구의 구성을 N-의 N-의 N으로 가정하고 재구조화 규칙을 연속적으로 적용하여 유도할 수 있고, 적정 명사구 삭제도 연속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자료는 이러한 기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172) ㄱ. '철수의 몸의 살이 많이 빠졌다.
 ㄴ. 철수의 몸은 살이 많이 빠졌다.
 ㄷ. 철수는 몸의 살이 많이 빠졌다.
 ㄹ. 철수는 몸이 살이 많이 끊다빠.
 ㅁ. 철수는 몸이 φ 많이 빠졌다.
 ㅂ. 철수는 φ 살이 많이 빠졌다.
 ㅅ. 철수는 φ φ 많이 빠졌다.

—예문 (38)은 빠지다₈ 구문의 N₀ 위치에 물, 얼룩, 때등과 같은 계열paradigme을 이루면서 특이한 P 것 연쇄가 올 수 있음을 보이는데, 이 P 것 연쇄의 성격에 대해서는, 빠지다₅의 논의에서 언급한 바대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예문 (39)는 빠지다₈의 용례의 하나로 (37) ㄱ.-ㄴ.이나 (38)과 한데 둑일 수 있으나, 이때 문두 위치의 이 비누-(로+E)-는 연쇄는 빠지다₈ 구문을 특징짓는 보어로 분석하기 어렵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의 동사 구문에 분포가 가능한, 도구를 나타내는 비보어적 성격의 성분으로 특징지을 수 있겠다.

- (173) ㄱ. 이 칼-(로+E)-는 (고기가+E) 잘 안 썰어진다.
 ㄴ. 이 펜-(으로+E)-는 (글씨가+E) 잘 안 써진다.

4. 맷 는 말

이 글은 공식적 성격의 대규모 한국어 사전/한국어 동사구문 사전의 편찬을 위한 어휘자료 구축작업의 테두리 내에서, 동사 빠지다를 문제삼아 본 것이다. 우리는 우선 빠지다의

여러 쓰임새를, 다양한 용례와 함께 분류·정리한 자료를 소개하였다. 또 한편, 우리가 고안한 동사용법 기술의 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언어학적 논의의 일부로, 일반 자유구문에 사용할 수 있는 빠지다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기능동사, 보조동사/형용사로 쓰이는 빠지다나 또한 다양한 유형의 관용구문을 이루는 빠지다와 대조되는 빠지다를 여덟 개의 동형어로 분할하는 시도를 하였다. 우리는 각 유형의 빠지다가 실현되는 특징적 단문구조를 한정하고, 또 각각의 빠지다 구문이 보이는 주요한 통사·어휘성 속성,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특성을 기술하고 동형어 분할의 타당성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언어학적으로 근거있는 사전적 어휘기술을 위해서는 중요하게 살펴 보아야 할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검토되었다고 여겨진다.

우리의 논의는 빠지다의 가능한 용법을 주로 어휘·통사적인 논거에 의거하여 구별하고 한정해 보는 데에 집중되었다. 우리에게는 물론 이 글의 후편에서 여타 유형의 빠지다—특히 기능동사와 속어동사의 성격을 보이는 빠지다의 사용을 분석하고 기술해 볼 일이 남아 있으나, 이 글에서의 분석적인 작업의 연장으로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잠정적으로 두 개의 범주로 묶어 분할·제시된 일반 자유문구의 여덟 개의 빠지다를 일반화된 시각에서 다시 체계화·조직화해 보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구별되는 빠지다 구문 사이의, 또는 각각의 빠지다 구문과 또 다른 유형의 동사구문 사이의 가능한 상관관계의 문제를 더욱 정밀하게 천착해 보는 것이다. 그것은 거시적 시각에서, 일반적인 설명적 기제에 입각한 체계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남겨 놓은, 불명료하고 미진한 세부적인 국면에 대한 정밀한 분석적 논의도 더욱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노윤채, 1992. *Les constructions converses du coréen: Etude des prédictats nominaux*, 빠리 제7대학 박사학위 논문.
- 박형익, 1989. 주다 동사의 세 가지 용법. 한글 제203호.
- 정수영, 1991. 의미·텍스트 대응모형 속에서의 어휘기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선혜, 1990. 불어 기능동사 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만규, 1993. *Restructuration de la complétive des verbes de cognition et des verbes de communication en français et en coréen: lexique-grammaire compar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재성, 1985. *Syntaxe des verbes de mouvement en corée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_____, 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 연구, 탑출판사.
- _____, 1989. ‘내려가다/내려오다’와 그 사전적 처리, 애산학보 제 7집, 애산학회.
- _____, 1990. 견디다 구문의 기술을 위하여, 한글 제208호.
- _____, 1991. 둘다 용법의 통사적 기술과 사전, 국어의 이해와 인식, 갈음 김석득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한국문화사.
- _____, 1992a. 한국어 관용 표현 연구의 한 시각, 제19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 _____, 1992b. 동사 먹다의 사전적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논의, 새국어생활 제 2권 제 4 호.
- _____, 1993. 약속의 문법 : 서술명사의 어휘·통사적 기술과 사전(인쇄중), 동방학자 80
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Giry-Schneider, J., 1987. *Les prédictats nominaux en français*. Genève: Droz.
- Gross, G., 1981. Lexicographie et grammaire, *Cahiers de lexicologie*. 39-II. Paris: Didier.
- _____, 1989. *Les constructions converses du français*. Genève: Droz.
- Chaurand, J., et F. Mazière, éds. 1990. *La définition*. Paris: Larousse.
- Gross, M., 1975. *Méthodes en syntaxe*, Hermann.
- Guillet, A. et Ch. Leclère., 1981. Restructuration du groupe nominal, *Languages* 63. Paris:
Larousse.
- Harris, Z., 1965. Transformational Theory, *Language* 41:3.
- Mel'čuk, I. et al. 1984, 1988, 1993.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I, II, III.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Ramos, M.A., 1991. Verbes supports et fonctions lexicales, *Lingvisticae Investigationes*
XV: 1.
- Zribi-Hertz, A., 1978. *Economisons-nous*: A propos d'une classe de formes réflexives
métonymiques en français, *Langue Française* 39. Paris: Larousse.

《Résumé》

Dictionnaire et syntaxe

—Pour une description lexicographique du verbe coréen: *ppacita* (I)—

Hong Chai-song

L'objet de cette étude est de systématiser les emplois du verbe coréen: *ppacita* (tomber). Cette description constitue un fragment de l'analyse lexico-syntaxique du verbe, qui puisse servir de matériaux à la construction, soit d'un dictionnaire syntaxique des verbes coréens, soit d'un grand dictionnaire général du coréen.

Cette étude est effectuée d'autre part en vue de démontrer, avec un exemple concret, qu'il existe des liens fort étroits entre le travail lexicographique et des recherches syntaxiques, elle vise en particulier à faire valoir la nécessité de fonder la description lexicographique des entrées lexicales sur les résultats des recherches du type 'lexique-grammaire' de Gross ou du type 'DEC' de Mel'čuk.

Cette étude comprend deux parties: la première partie que nous présentons ici traite les emplois de *ppacita* en tant que verbe libre ordinaire; dans la deuxième partie, nous analyserons les autres aspects du verbe: emplois dans les constructions à verbe support et emplois dans les phrases figées. Dans le présent article, nous avons distingué huit emplois possibles de *ppacita*, qui se regroupent en deux catégories. Nous avons présenté et discuté notamment les principaux arguments linguistiques à dominante syntaxique qui permettraient ce type de systématisation des emplois de *ppacita*.